

제주도 방언의 고찰(2)

— 문헌어와 대비하여 —

송 상 조

I

1985년에 60여 어휘를 중등국어교육회연구발표집에 실고, 이번에 계속이 되는 셈이다.

방언과 문헌어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다가 보니 방언이 사라지기 전에 좀 더 많은 어휘들을 대비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일곤 하였다. 언해류를 읽어가다 보면 아주 생소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제주 토박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번에 실는 90여개의 어휘는 형태, 의미나 기능에서 비교적 문헌어와 접근된 것을 골라 실는다고는 하였다.

출전을 밝히기는 했지만 재인용도 있어 통일이 되지 못한 점도 있고, 자료의 나열에 불과하므로 각주도 생략하였음을 밝히며 <玄><朴> 등은 방언사전편저자들이다.

여기에서 미흡한 것은 다음에 다시 보충하기로 한다.

II

○가도다(監禁)

獄은 죄지은 사 례 가도는 따히니 <月釋 1 : 28>

위의 말은 표준어나 방언에서 모음교체가 일어나 [kaduda]로 쓰여진다. 이 'kadu-'에 파생접사 '-ri'를 붙여 [kaduri] 양식장을 파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표준어나 방언에서는 '가도다'의 뜻으로는 '拘禁'이나 収監하다'로 쓰이며 동물을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할 때는 '가두다'를 쓴다.

그런데, 방언에서는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서 '사람 가두아 브렸져' 따 위의 말을 들을 수가 있다.

○가리다

歧灘 가린 여홀<용가 44>

이와 같은 뜻의 말은 '거리다'로 모음 교체가 일어난 것도 있지만 방언에서는 문헌어의 형태와 뜻이 같게 쓰인 적이 있었다.

'붓 가렸져' 또는 '펜 가렸져' 할 때의 '가리다'가 그것이다. '가리-'의 형태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고, '못쓰게 되-'로 바뀌어 가는 것 같다.

'가리-'에서 모음교체가 일어난 '거리-'도 '두 거림에 거리-'(두 가탁으로 가르-)인데 거의 쓰이지 않고, '간(肝) 흐 거림, 두 거림' 할 때 들을 수 있을 정도다.

'거림'은 '거리-'에 파생접사 '-ㅁ'이 붙은 것이다.

○가시다(變)

맛 가시요매(變味)<內初 1 : 52>

제주도 방언의 고찰 (2)

제주 방언에서는 ‘가시다’로 쓰여진다.

통시적으로 볼 때 ‘가시다’가 ‘시다’에서 ‘-’모음이 떨어짐에 따라 ‘가시-’가 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방언에서는 ‘의’는 거의 ‘이’로 나타나므로 ‘가시-’로 되었다고 보아진다.

‘물 맛 가시었져, 장 맛 가셨져’ 따위가 그렇고 ‘막가시 호였져’는 ‘맛 가시-’에서 생겼다고 보아진다. ‘막가시-’는 폐쇄연접에 따라 ‘입천청소리 되기(구개음화)나 변자음화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 간(分數)

分은 제여꾼 가니니<阿彌 16>

방언에서 쓰이는 보기를 들면

느 간에 그걸 헨자?(너 정도·주제에 그 걸 했느냐?)에서 ‘간’이 ‘간’과 같은 뜻으로 보아지는데, 방언에서 통합은 인칭 대명사나 고유명사와만 이루어지고 ‘간’의 쓰인 느낌은 업신여김이나 낮춤을 나타낸다고 보아진다.

○ 간대로

간대로 니르와다<금강 9>

방언에서도 뜻과 형태가 문헌어와 거의 일치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통합은 부정의 뜻을 지닌 말과 이루어진다고 본다.

‘간대로 떠들지 말라’인데 긍정의 형태와 어울리는 것은 ‘멋대로 떠들어라’이다.

그리고, 이형태로서 음절이 첨가되어 ‘간대망으시’가 있다.

○ ㄹ 랍다(癢, 痒)

ㄹ 라와 ㅎ 심애(苛癢)<小언 2:7>

방언에서는 [kerjɛpta]로 재구조화되어 쓰이며 뜻은 같다. 표준어로 ‘가렵다’로 방언과 거의 일치하는 형태와 의미를 지닌다.

○ 쫘다(日敎)

즐겨 쫘는너 즐겨 ㄹ ㄹ치디 아닛는너(耐繁敎那 不耐繁敎)〈금삼 28〉

방언에서는 ‘쫘다’가 ‘말하다’의 뜻으로 쓰이며, 완전하게 활용을 한다. 쫘고, 꼬라서, 꼬르니...’에서 씨끝(어미)에 제약을 받지 않으나, ㄷ(더군) 불규칙 동사일 뿐이다. 그런데 문헌어에서나 표준어에서는 기본 형태를 {쫘다, 가로다} 보아 불완전 활용동사로 처리하고 있는데, 방언의 형태인 ‘쫘다’를 기본형태로 보면 어떨까 한다.

○ 쫘오기

쫘오기 찬(攀)〈字會上:17〉

방언에서는 [kelegi]로 나타나는데 표준어 쌍둥이(雙一)와 같은 뜻이다. 그런데 ‘쫘레기’는 같은 성(性)을 타고 났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쌍’은 다른 성으로 각각 태어났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李朝語辭典〉이나 〈古語辭典〉의 뜻풀이는 모두 쌍둥이로 나와있고 〈濟方·石〉 〈濟方·朴〉에서는 ‘쫘레기/쫘로기/쫘루기/가로기’를 들고서 역시 쌍둥이로 풀이하고 있다.

문헌어 ‘쫘오기’는 ‘쫘-’에 ‘-기’파생접사가 붙어 이루어졌는데 ‘쫘-’은 ‘並’의 뜻으로 보고 동성이 들, ‘雙-’은 異性이 들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쫘오기’는 이제는 문헌어에만 남아 있고 방언에서는 거의 사라진 말이 되어버렸다.

○ 갓쫘오다, 갓ㄹ로, 갓ㄹ로(倒)

갓ㄹ로 흘리리오(倒流)〈杜초 8:30〉

제주도 방언의 고찰 (2)

표준어나 방언에서 ‘꺼꾸로, 거꾸로/꺼꾸로’ 나타나서 별 문제가 없는데, 파생의 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방언에서 맨 끝을 나타내는 말에 ‘꺀’이 있는데 ‘갓 ㄹ로’에서 형태분석을 하면 ‘꺀+오로’가 되고 앞소리는 된소리가 되고 ‘ㅅ’이 ‘낫’에서 ‘ㄱ’이 되듯이 되면 ‘꺀’이 된다. 그러면 일등 이등 꺀등이 표준어 꼴찌와 뜻으로 대응이 된다. 방언에서는 ‘꼴등’과 ‘꺀등’이 함께 쓰이다가 ‘꺀등’은 거의 사라졌고, ‘꺀’도 같은 처지이다.

○갓기다(勞)

帝의 갓기시디 아니하샤(不煩)

방언에서 형태가 비슷한 [kək̚kida]가 있지만 뜻에서는 차이가 난다. 방언의 예를 들면

물 먹단 고끼였져(물을 마시다가 목에 딱혀 잘 내려가지 아니하였다)인데 잘 내려 가도록 애를 쓴다는 점에서는 접근이 되고 있다고 보고 어의 축소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진다.

문헌어에서 동족어로서 갓브다/갓브다(勞)를 들고 있는데 표준어는 ‘가쁘다’이다. 가쁘다는 역시 힘이 든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진다.

○고슴(料)〈四海下: 18〉

방언에서는 ‘고슴/고슴/고슴’ 따위로 쓰인다. 표준어는 ‘감’이다. 방언에서도 표준어의 형태를 취하거나 한자어 재료도 거의 교체된 상태의 말이라 보아진다.

갓다(具, 備)

사로미 본래 비록 ㄹ즈나(人雖本具)〈능엄: 3: 11〉

방언에서는 [ketta]로 나타나고 완전 규칙 활용을 하며 문헌어와는 형태, 뜻, 기능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갓추다’나 ‘완전하다’로 대치가 되었다.

○ 썩럽다(漚)

누네 가시드러 썩러워 알파(漚痛)〈救方下 : 37〉

방언에서는 생산적으로 쓰여지던 말로 여겨진다. 까끄라기가 옷에 붙었거나 했을 때 ‘꺼럽다’고 했었고, 까끄라기를 방언에서는 ‘꺼렁이’라고도 하였다. 문헌어와 거의 일치하게 쓰였다고 보아진다.

○ 거리다(濟, 拯)

救^하야 거려(救濟)〈法化 : 2 : 134〉

표준어에서는 형태나 의미가 나타나지 않고 한자어 ‘구제하-’로 교체되 었거나, ‘뜨-’로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거리다’는 파생접사로 ‘-거리다’의 형태를 널리 쓰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것이다.

방언에서의 쓰이는 예를 보면,

멜 거리다(멸치를 그물같은 것으로 건져 올리다)

국 거리다(국을 국자로 뜨다)

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표준어 ‘건지다’의 뜻에 부합되게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원래 ‘문헌어’에서 ‘구제하-’의 뜻도 의미확대에 의해 쓰여지는 말로 여겨지고 본래의 뜻은 ‘물에 있는 것을 건져 올리-’는 것이라 보아진다.

○ 거슬다(逆)

제주도 방언의 고찰 (2)

뜨들 거스려(逆情)〈능엄 2:72〉

小人이 거스려(小人逆天)〈용가 74〉

방언에서는 ‘거스다’〈현〉, ‘저시다(석)’으로 올라 있는데, 표준어 ‘건드리다’의 뜻으로 풀이가 되어 있다. ‘거스-／저시-’의 형태는 ‘-르-’이 탈락으로, 또는 전설모음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뜻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림으로 해서 상대방의 감정에 거슬리는’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본다. 문헌어 ‘거슬다(逆)’에 대응되는 말은 ‘거스리다／저시리다’ 또는 ‘저역하-’ 정도인데 같은 어근(Root)에서 갈려져 나왔다고 본다. 방언에서 ‘거스리-／저시리-’의 예를 보면,

‘눈에 거스리-／저시려-’로 혼히 쓰여지고 있다.

○ 거피(皮)

불어 거피 앓고(燙去皮)〈救方下 59〉

방언에서 ‘거피(皮)’에 대응되는 형태로는 ‘거죽／겉죽／가죽’ 따위로 쓰이지만, 가끔 ‘저핍’의 형태로 쓰인다. 그런데, 동사로서는 ‘거피다’가 쓰인다.

모밀·보리 거핍져(메밀, 보리의 껍질을 벗기고 있다).

인데 ‘거피’에 ‘-다’접사가 붙어 파생된 동사로 보며 문헌어의 뜻과 형태에 일치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 전티다

전티염죽호면〈捷解新語 1:4〉

방언에서는 ‘준디다’로 나타나는데, 음운론의 입장에서 설명이 가능하여 ‘전티다’에서 재구조화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본다.

‘전티다’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 ‘전티-’가 되고 다시 단모음화가 일어나 ‘전디-’가 되었지만, 방언에서는 ‘·’의 쓰임이 드셈으로 ‘·’로 동화가 되어

‘준디다’로 쓰이는 것으로 보아지며, 표준어 ‘견디다’의 뜻에 일치한다.

○겨를/겨르/겨르

겨를 업스샤티<용가 80>

글와 이술 겨러 업도다(未遑等)<杜初 24 : 40>

방언에서는 ‘즈를/즈로’로 쓰여진다. 앞의 ‘견티-’와 같은 음운현상이 일어났으며 표준어에서 ‘여가’나 ‘름’으로 교체되었지만, 방언에서는 이들과 아울러 쓰여지고 있다.

○겻고다, 겻구다(覿)

적 즈를 겻고아<釋 6 : 26>

방언에서 쓰임을 보면

말재끼다(말로 사리를 따지다)인데 형태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음운론의 입장에서 설명이 가능한 점으로 보아, 같은 형태에서 나온 말이라 본다.

특히 방언에서는 겻글소리의 쓰임은 제약을 많이 받아 단모음화가 이루어지는 예가 많으며, 전설모음화의 경향이 두드러지다.

‘겻’이 ‘젻’으로 구개음화하고, ‘-구-’가 전설모음화하였다. 방언에서 九九法을 [구기]로 발음이 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고단ㅎ다

내 만일 사름의게 가면 고단ㅎ여 어디 힘 니블고(我若適人? ? 何何賴)<東新烈女 78>

같은 형태 ‘고단하-’가 ‘피곤하-’로 쓰이고 있으며 ‘고단고단’이 부사로 ‘이것저것 떨어진 것 없이 모두’(玄)로 뜻풀이가 되어 있으며, 같은 책에서 ‘고단-하다(孤單-)’로 한자어임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 방언의 고찰 (2)

이 말은 ‘외롭-’에 놀리어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 되었다. 예를 들면,

고단한 사름(일가 친척이 없어 외로운 사람)
으로 쓰였다.

○고디(直)

부텃 마를 고디 드르라<釋 13:47>

방언에서는 흔히 쓰이면서도 실사와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고 접두어같은 느낌이 드는 말이다.

통합이 비생산적이어서 ‘듣-’과만 이루어져 ‘고지 듣-’이 되기만 한다. 이 말을 분석하면 ‘곧-과 -이’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방언에서는 다시 ‘-앙’의 접사가 붙어 ‘고지+앙’이 ‘고장’으로 어휘적 파생이 이루어져 같은 뜻으로, 통합에서도 같이 쓰인다. ‘고지 듣-’이나 ‘고장 듣-’이 그 예이다.

○끓다(未滿)

빈 골하 ㅎ 거든<釋 11:41>

방언에서는 ‘골르다’로 재구조화가 되어 쓰여지던 말인데, 표준어에서는 ‘끓다’나 ‘고프다’ 따위로 어의의 변화나, 파생어로 쓰이는 말이다. 그러나, 방언에서는 형태가 재구조화하였지만 의미는 문헌어 끓다(未滿)에 일치하는 말로 여겨진다. ‘배가 골라, 항이 골라’ 따위가 쓰인다.

○곱(重)

구리 기들 링 ㄹ라 곱으로 불라<內訓序 4>

방언에서는 곱이 ‘배와 重’의 뜻으로 쓰이는데 문헌어와 완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표준어의 ‘겹’과 ‘배’에 놀리고 기껏해야 ‘곱-배기’에서 그 형태

가 쓰이고 있을 뿐이다. *

방언에서 '重'의 뜻으로 통합을 이루는 예는 '쌀을 곱 잡으라'가 고작이라고 보아진다.

○ 곱다(曲)

曲은 고불 씨라<釋 11:6>

방언에서 '곱다'가 쓰이는 예가 '손이 곱-'인데 그 외에는 '굽-'으로 쓰이는 것 같다.

특히 '손 곱-'도 추워서 손을 제대로 펴지 못할 때에 쓰여지는 말이기 때문에 흔히 모음교체에 의해 상태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말일 것도 같다.

○ 눈썹 눈 곱(脂)

面垢帶脂(文 더럽고 눈썹 끼이다)<漢濶 237>

방언에서는 '눈썹'으로 쓰인데 문헌어 '곱'은 '좁'으로 거센소리로 된다. 그리고 '좁'은 '치나 脂'의 뜻으로 쓰이는 점으로 보아 회귀어로 문헌어와 일치한다.

○ 구브렁(肘) 구블(腿, 尻)

폴구브렁 듀(肘)<字會上 : 13>

구블 구브를(髒腿)<救간 1:60>

방언에서도 엉덩이의 윗쪽 부분을 '구블', '구블쩍'이라고 한다. 이 말의 어근은 '굽-'에서 '-을'이 붙어 몸의 일부분의 명칭이 되었고, '-으렁'이 붙어서 팔이 구부러진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제주도 방언의 고찰 (2)

○구송(呵)

미리 구송 니복을 전느니(預畏被呵)〈永嘉下: 71〉

방언에서는 ‘구송하다’로 나타나는데 뜻은 자기에게 잘 해 주지 않는다고 흉잡다(玄)로 풀이되어 있다. 문헌어 풀이는 ‘꾸중하다’로 풀이가 되어 있는데 의미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아진다.

방언의 형태는 모음교체가 일어났고, 단모음화가 일어나서 형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구위, 구위실, 구실(公務 稅役)

구실에 참여티 아니 흠이라〈小언 6: 53〉

구의예 오미(到官)〈杜初 25: 36〉

방언에서 ‘구실’은 役割의 뜻으로 흔히 쓰여지지만 ‘구위’의 형태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한자의 뜻풀이에서 ‘공’을 ‘귀공’이라고 한다. 이 때에 ‘귀’가 문헌어의 ‘구위/구의’에서 음운변화가 일어나 단모음화, 음절을 줄임에 의해서 ‘귀’가 되어다고 본다.

한자대전에서 ‘공’은 ‘공변될 공’(平分無私)로 나와 있어서 ‘구위/구의’는 사라졌고 오직 방언의 훈에서나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진다.

○구티다(敢, 固, 堅)

하₃히 구티시니〈용가 30〉

문헌어에서 형태를 분석해 보면 ‘굳+히-’가 되겠는데 표준어 ‘구태어’에 대응되는 것은 ‘구티어’로 나타나고 또 ‘固나 堅’의 뜻의 형태는 ‘구투다’로 나타난다. 접사 ‘-히-’와 ‘-후-’에 의해 약간의 뜻의 분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그늘울 비(庇)〈類合下 : 28〉

방언에서 쓰이는 예를 보면

그늘와 주멍 키와 주단 보난(북돋우면서 키워 주다 보니)에서 ‘그늘와’가 같은 형태와 뜻을 지닌 것으로 보아진다. 물론 방언에서도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그리다(思, 戀)

다 그리우물 머거(咸皆懷戀慕)〈法率 5 : 161〉

방언에서는 ‘그리다’의 꼴이 과거에는 다양하게 쓰였으나 거의 다른 말로 교체가 이루어져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밥을 그려, 옷을 그려, 아이가 어시를 그려

따위로 쓰이다가 ‘밥, 옷을 그려’는 거의 쓰이지 않고 ‘어시를 그려’에서는 ‘그립-’의 형태인 ‘그리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표준어 ‘그리워하여’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워하여’만 보면 어근이 ‘그립-’에서 출발한 것으로만 잘못 여길 수도 있다.

○금치다(評價하다)

出門看舍笑相喜는 금 못칠가 호노라)〈해동 112〉

금터 드리리잇가(癸丑 41)

방언에서도 ‘금’(물건의 값)으로 쓰이기도 하며 음절이 확장된 형태 ‘금지’, ‘금새’가 쓰이기도 했었고, 접사가 붙어 ‘금-나다, 금지 치다. 금지 조르다’ 등 다양하게 쓰였지만 지금은 거의 다른 말로 교체가 된 말이다.

제주도 방언의 고찰 (2)

○ 깃다(茂)

기으미 기어 나들 호야 브리듯 호니라(月인 10:19)

방언에서는 ‘풀이 무성하다’의 뜻으로 ‘깃다’를 써서 ‘풀이 지셨져’로 한다. 이 때 ‘깃다’가 문헌어 ‘깃-’과 같음은 물론이다. 현재에도 비교적 생산적으로 쓰인다.

○ 나ㅎ(年齡)

내나흔 늙고(我年老大)〈法 2:213〉

방언에서도 ‘나’의 형태로 같은 뜻으로 쓰인다. 특히 ‘나+이’의 형태는 표준어와도 일치해버리지만 ‘나’의 형태는 ‘나토 많다 는 멧 나 우고’ 따위에서 ‘나ㅎ/나’의 형태가 쓰이는데 이제는 ‘나이’나 한자어로 교체가 되고 있다.

○ 놀압다

艱難코 놀아와(貧窮下賤)〈法화 2:167〉

방언에서 ‘놀압다’와 형태와 뜻이 같은 말은 ‘그 놀락진 거’할 때의 ‘놀락진’이 아닐까 한다. ‘놀락진’은 ‘하찮은’의 뜻으로 쓰이는 점으로 보아 같은 의미로 가정하여 본다. ‘놀압-’과 ‘놀락-’은 음운이 덧남과 음절의 증가와 축약으로 보면 어떨까 한다.

놀아>놀라, 비>오-악이 되어 놀라와>놀락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 놀깝다(銳)

갈 큰 놀깝고(曲:162)

표준어는 ‘날카롭다’에서 음절이 더해진 형태인데 방언에서도 ‘날카롭다’가

쓰이기는 한다. 그런데 날카로운 사람을 가리킬 때 ‘놀케/놀캐 닳은 사람’이라고 할 때가 있다. 문헌어 ‘놀갑다’를 분석하면 놀ㅎ+갑다’가 되는데 방언의 ‘놀케/놀캐’는 놀ㅎ+계(蟹), 또는 (犬)인지, 아니면 ‘놀ㅎ+갑-’에 접사 ‘이’가 와서 ‘놀카비>놀카이>놀캐’가 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ㄴ갑다(賤, 卑, 低)

低는 ㄴ가블씨라

문헌어 ‘ㄴ갑-’을 분석하면 ‘ㄴ-+-갑-’이 되는데 방언에서는 ‘ㄴ-+-갑-’이 붙어 문헌어와 다른 형태의 접사가 붙지만 어휘적 파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 넋할미

모든 아즈미며 넋할미 남편으란 반드시 곧오 터(諸姑奪姑之夫必曰)〈小언 74〉

문헌어나 표준어나 방언에서 두루 쓰여지는 가족의 말이지만, 이 형태로 ‘넋-/넋-’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넋(脅)脇, 腋

넋 爲脅〈解例 合字〉

인체의 부분 명칭으로 표준어로는 옆구리인데 방언에서도 읍+구리 ‘읍+댕이’로 쓰인다. 접사 통합에 차이를 느껴지는 말이다.

○ 놀이다

가온터 쓰리 놀이는 고래 잇도다(中有多尾鯨)〈杜諺 22 : 18〉

문헌어 ‘놀이-’의 분석은 ‘놀+이’가 되겠는데 이 때의 뜻이 ‘놀리다, 회롱

제주도 방언의 고찰 (2)

하다'가 되는데, 후자의 뜻이 더 짙게 느껴진다.

'사람 놀이지 마라'에서 '놀이-'는 역시 어의가 확대되어 쓰인 말이다.

○누리 타 (稜)〈字會下 5〉

누리 즈(積)〈新增下 58〉

표준어로 '누리'는 '노적더미를 가리키는 말인데 방언에서는 '눌'이다. 방언의 경우 음절이 짧은데 차이가 있다.

그런데 '눌'은 동족어로서 '꿈을 꾸다'와 같이 '눌을 놀다'가 되어서 '눌-'에 '-다'의 접사가 붙어 통사적 파생어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지며, 문헌어 '누리'에서는 '눌'에서 '눌+이'가 되어 어휘적 파생을 해서 음절만 증가시켰다고 보아진다. 표준어 노적더미는 한자어와 고유어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낱임을 알 수 있다.

○놀다 (燠)

숫브레 놀게 호야〈救間 1 : 18〉

누리 이우더니(燠枯)〈金삼 5 : 45〉

방언에서는 '눌-'로 완전 활용이 이루어지며, '-르-'이 탈락하기도 한다. 방언(玄)에서도 기본형을 {놀다}로 나타냈지만 방언에서 '놀고'로 되지는 않고 '눌고'로 된다고 보아진다.

○느정(穰)(花)

모밀 느정(穰)〈東醫 湯液 1 : 26〉

모밀 느정(穰)과 콩넝과 콩각대(木麥花太業太穀)〈救荒 10〉

문헌어 사전에서 같은 '느정'이면서도 하나는 '穰'의 뜻으로 하나는 '花'

의 뜻으로 풀이하여 있지만 꼭 같이 ‘모밀느쟁이’를 보기말로 들로 있음은 같다.

그런데 방언에서는 ‘모밀 겨’를 ‘느쟁이’라고 하는 점에서 ‘느쟁이’와 ‘느쟁이’는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한다. 쓰이는 예를 보면

‘모밀 느쟁이 범벅’ ‘느쟁이 풋’ 따위가 있어 ‘느쟁이’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늘다(勝·於)

公德이 노파 불 비츠로 莊聲호미 日月라와 느러(釋 9:4)

‘늘-’의 뜻은 ‘더 낮-’의 뜻으로 방언에서도 쓰인다. 예를 들면

‘아시가 성보다 살림이 느러’에서 더 낮다가 드러난다.

○니마ㅎ(額, 頂)

부텃 니마히 겨신 白豪光明이라<金三 2:51>

빚니롤 로(纏)<字會 中:13>

문헌어에서는 ‘니마ㅎ’, 표준어에서는 이마인데 방언에서는 ‘임뎡이’가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 방언은 형태분석했을 경우에 임+뎡이가 되는데 니마ㅎ나 이마에서도 분석을 했을 때 ‘님+아’, ‘임+아’가 됨은 물론이며 같은 형태에서 분화되었고 같은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등기다 등기다(牽)

소노로 左스녀 右스녀기 各各 등기다가(以手左右各牽)<능엄 5:24>

표준어에서는 ‘당기다’로 되어 있는데 방언에서는 ‘등기다’로 2중모음이 단모

음으로 된 것이 다를 뿐이다.

○ 된즈기

머릿 터력을 된즈기 자바(掌緊)<救간 1 : 60>

표준어에서 대응되는 형태는 ‘되-’가 될 것 같고 뜻은 ‘대단히’인데 방언에서 어근을 먼저 살펴 보면, ‘된작된작’의 상징어가 어휘적 파생을 하여 ‘된자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쓰이는 예를 보면

된작이 불라(정도에 지나치게, 또는 흠뻑 발라)

이다.

○ 도라(求, 要)

가시며 子息이며 도라 ㅎ야도<月 1 : 13>

표준어 ‘달라다’에 대응되는 말인데 문헌어나 방언에서 같은 형태와 뜻을 지닌 말이다. 표준어나 방언에서도 활용이 불완전하고 뜻도 남에게서 자기에 주기를 청하는 말이다. 품사는 동사임이 확실한데 기본형을 설정한다면 표준어의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서 {도라다}가 되어야 하고, 종결어미로 쓰였을 때에는 명령법이 되고, 연결어미와 통합이 되었을 때에는 인용격 조사와 어울리고 인용법이 되는 것이 특징인 말이다. 방언의 예를 들면

나 흑곰 도라. (나에게 조금 다오)

나 흑곰 도랭 하여도 안 주곡(나에게 조금 달라고 하여도 안주고)

이다.

제주도 방언의 고찰 (2)

장작의 단위를 나타내는 ‘바리’가 생겨났다고 보아지며, 이제는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 브스라기(屑) 스라기(糶)

쇠 브스라기(鐵屑)〈救方下 : 89〉

漆民이 겨와 스라기도 흰히 묻 어더 먹놋다(서민糖糶糶)〈杜초 16 : 71〉

방언에서는 ‘브스래기’와 ‘스래기’가 다 있는데 문헌어 ‘브스라기’가 ‘브-’에서 어휘적 파생을 해서 ‘부스러기’가 된 것인지 ‘쌀’의 옛말 ‘꺄’에서 파생이 된 것인지 궁금함이 있다. 문헌어 ‘스라기’는 ‘슬+아기’임이 분명하나, 방언에서도 거의 쓰이지 않아 가고 있다.

○ 비솔(內臟)

또 구리 토빈 거시 비솔홀 싸해며(月釋 21 : 43)

방언에서 ‘배설’이 형태로 쓰이고 있다.

○ 버워리(瘡·啞)

버워리 암(瘡·啞)〈字會中 : 16〉

방언에서는 ‘버버리/빙어리’의 형태로 쓰인다. ‘버버리’의 형태는 ‘버버’의 상징어에 다시 ‘-리’ 붙어서 통사적 파생을 했다고 본다. ‘버버’는 의성어로서 ‘알아 들을 수 없이 떠드는 소리’를 뜻한다.

○ 북괴다

북괴엿도소니(海徒湧)〈杜諺 17 : 24〉

‘끓어 뒤섞이다’의 뜻인데 방언에서는 ‘북괴다’로 ‘북적거리다’의 뜻으로 쓰

이고 있다. 문헌어 ‘불괴-’를 분석해 보면 불다’(※다), 괴다’의 비통사적 합성 이임을 알 수 있겠고, 방언의 ‘불괴다’도 비통사적 합성어이며 ‘※-’에서 ‘-스-’이 떨어져고 원순모음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고 문헌어의 형태와 의미를 거의 일치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브리다(下)

제 탯는 목를 브려(自下所騎馬)〈杜초 8:57〉

‘짐부리다, 내리다’의 뜻으로 방언에서도 ‘부리다’가 쓰이다가 거의 안 쓰이고 있다.

○사망

이 盛宴의 參詣하는 거슨 우연치 아닌 사망이을쇠(隣語大方一)

‘장사에 이(利)가 많이 남는 재수’의 뜻으로 방언에서는 ‘스망’으로 나타난다. 통합은 ‘스망 일었저’ 또는 ‘스망이여’ 정도다.

○섭(薪)

섭爲薪(鮮例 用字)

방언에서 ‘섭(薪)’의 쓰임은 다양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잎’으로 교체되고 있다.

낭섭 술섭 섭상귀 따위이다.

○석 → 고삐

물석 잡고 새배독 소리를 드러(驢馬聽晨雞)〈杜초 8:27〉

제주도 방언의 고찰 (2)

방언에서 '쇠석'으로 주로 쓰였고, 또 '가린 석' 같은 '줄'에 까지 쓰였었다.

○ 앓다(坐)

帝釋 앓는 따히어나<석 19:6>

방언에서는 '앓다'가 쓰여 완전 활용을 한다. 표준어 '앉다'는 '앓다'보다 후기적 형태 보는 견해에 동감한다(서재극中世國語의 單語族研究)

○ 이기다

이기지 은 으사<성교전서(愨)>

1887년에 나온 <성교전서>에 '이기다'가 '면하다'의 뜻으로 실렸고 1937년 <改譯성서>에서는 용서하다로 바뀌었다고 <全在昊>에서는 밝히고 있다.

방언에서는 '애기다'가 나오는데 그 쓰이는 예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나 너신디 꾀 깎 애기었져(나 너에게 꾀 값을 갚았다.)

무엇과 무엇을 애기 대기 ㅎ자(○○과 무엇을 없어진 것으로 하자)

따위의 뜻으로 쓰이는 점으로 보아 뜻이 <성교전서>와 완전한 일치는 아니 하더라도 거의 접근한 것으로 보아진다. 방언에서 사용자는 대개 어린이들이 주로 쓰고 있다.

○ 오래(門)

오래 문(門)<光千, 石千 27>

방언에서는 '올레'로 나타나는데 '거릿길 이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 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玄)'로 풀이가 되어 있는데 문헌어의 뜻풀이는 '오래'가 대문으로 되어 있지만 생활환경이 다름에서 오는 뜻이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울에

울에 번게호니 사로미 다 놀라더니<석 6 : 32>

‘우뢰’의 뜻으로는 쓰이지 않지만 큰 소리로 소리치는 사람을 ‘올레쉬’하는 말이 쓰이기도 했다.

○인역

인역인들 아니 칭각이 인사올가<隣語放 9 : 17>

방언에서 자기 자신의 뜻으로 ‘이녀’이 쓰였다.

죏다(糶)

머리 죏스와(糶)<法화 3 : 100>

머리를 조아리다의 뜻으로 방언에서 머리 죏다가 쓰인다. 그리고, 방언에서는 규칙활용을 한다.

○즈의

즈의 앓고<救간六 : 43>

즈의 앓고(法濟)<救放下 8>

즈의 지(濟)<字會下 11>

방언에서는 ‘찌꺼기’의 뜻으로 ‘주시’가 쓰인다.

쓰이는 예를 보면 ‘감저 주시’ ‘술 주시’ 따위로 쓰인다.

○지달싸다

임이 이리 사오나오면 노의란 지달 ㅅ라(既저般反時 再來着반着) <老諺上 : 41>

방언에서 '지달ㅅ다'로 '마소의 발 한짝을 자유로 움직이지 못하게 몸에 동여 묶는 것(女)'을 말한다.

○천(錢)

다 이 어린 놈의 천이라(都是저果시의錢)<老下 : 45>

방언에서 '천(錢)'으로 독립해서 쓰이는 경우는 아직까지 조사하지 못하였고 접사로 물과 통합하여 '물천'이 되면 바다에서 잡은 물건(朴)이 된다. 문헌어 '천'은 자립 실질형태소로 재물이나 돈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방언에서는 접사로 쓰여 바다에서 나는 물건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천'이 錢에서 생긴 말인지, 고유어인지는 견해가 갈리고 있는 말이다.

○하외음

하외음 흙(欠)<字會上 : 30>

하외음 ㅎ며 기지계ㅎ며 (歎伸)<金삼 2 : 11>

'하품'의 뜻으로 방언에서는 '하우염'으로 재구조화하여 쓰이고 있지만 거의 하품으로 교체가 된 상태이다.

○헉다 훅다 훅다(小)(細)

혀근 선빅를 보시고(引見小儒)<용 82>

효근 니피 뻗고(浮小葉)<杜初 7 : 5>

호곤 마늘(小蒜)<救方上 : 33>

'적다'에 해당하는 문헌어인데 '헉-훅-훅'의 형태는 방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형용사로 '족다'와 부사로서 '조끔과 ㅎ끔'이 나타난다. 말머리에서 'ㅎ'과 'ㅈ'의 대응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통사적 파생을 한 'ㅎ끔'과 관계를 억지로 이끌어 보려 한다.

어간(어근)을 '혁-, 흑-, 흑-'으로 보고 방언에서 단모음화가 되어 '혁-흑-'이 되고 부사파생의 접사 '-끔'이 접미해서 '혁끔' 흑끔'이 되었지만 '·'의 영향으로 '흑끔'으로 변화한 것인가 하고 생각한다.

이 'ㅎ끔'이라는 말도 어린이와 노년층 사이에서 더러 쓰일 뿐 거의 다른 말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III

이상으로 90여 어휘에 대하여 문헌어와 대비를 시도해 보았다.

참고자료

- 김형규 「고가요주석」 1982 일조각
김영배 「석보상절 23, 24 주해」 1977 일조각
이병주 「두기언해초」 1982 집문당
허응, 이강로 「월인천강지곡상」 1963 신구문화사
단국대학교부설동양학연구소 : 「이분행실도」 1978
「여씨향약언해」 1976.
「천자문」 1973
「신증유합」 1984
「훈몽자회」 1983
아세아 문화사 : 「원본 노걸대언해전」 1980
「몽산화상 범어록 언해」 1980

제주도 방언의 고찰 (2)

「역어류해」 1974

「오률편비언해」 1982

「내훈여4서」 1974

「언해두창검험방」 등 5권 1973

한글학회 : 「구급방 상하」 1975

「석보상절」 1978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월인석보 1, 2」 1981

사전류

남광우 「고어사전」 동아출판사 4293

유창돌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9 4판

전규태 「고어사전」 서강출판사

석주명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

박용후 「제주도방언연구」 정연사

현평효 「제주도방언연구」 태학사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신기철 · 신용철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한글학회 「새한글사전」

장삼식 · 이가원 「한자대전」 유경출판사

참고서적

강성일 「중세국어형태론 연구」 유인

서재극 「중세국어의 단어족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0

심재기 「국어어휘론」 집문당 1982

전재호 「국어어휘사 연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1987

허 용 「우리 옛말본」 1979 샘문화사